

전주 정체성 담은 특별한 도서관 속속 개관

세 번째 여행자도서관 '한옥마을여행자도서관' 11월 8일 개관 · '동문거리 헌책도서관' 연내 개관 예정

책의 도시 전주에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도서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의 세 번째 여행자도서관인 한옥마을여행자도서관과 동문헌책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동문거리 헌책도서관이 연내 개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옥마을여행자도서관

앞서 시는 12개 시립도서관을 열람실 위주의 정형적인 도서관에서 자유로운 구조의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주 시청 로비 책가도도서관을 시작으로 △화산숲속시립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을 곳곳에 조성해왔다.

먼저 오는 11월 8일 개관 예정인 한옥마을도서관은 전주의 관광거점인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125㎡ 규모의 도서관으로, 전주역 앞 첫마중길여행

자도서관과 전라강역 인근의 다가여행자도서관에 이은 전주의 세 번째 여행자도서관으로 지어졌다.

한옥마을도서관은 전통한옥의 특징인 외적 폐쇄감과 내적 개방감을 활용한 구조로, 마당 조망이 가능한 창가에 좌식 공간을 조성해 서정적인 전통한옥의 멋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채워가는 삶의 여행'을 주제로 △삶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마음여행길, '마음곳간'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꿈여행길, '꿈방앗간' △마음을 터놓는 소통여행길 '내나무숲'이라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한옥마을도서관에서는 또 한옥 건축물이 주는 특징을 살려 한옥의 역사와 아름다운 건축물을 소개하는 특별한 큐레이션도 만날 수 있다.

한옥마을도서관에 이어 동문헌책방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동문

헌책도서관도 연내 문을 연다.

동문거리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면적 332㎡ 규모로 조성된 동문헌책도서관은 세월의 흔적과 역사를 지닌 책의 가치와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추억과 가치를 지닌 책 보물을 찾는 '발견의 기쁨'을 주제로 시대별 베스트셀러와 과거 급사가 되었던 책을 큐레이션한 점이 특징이다.

시는 동문헌책도서관이 소멸 위기에 놓인 동문헌책방 거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 도서관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전주 도서관의 역신을 통해 도서관이 일상 속 문화공간이 되고, 책이 삶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면서 "이어지는 새로운 도서관들의 개관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열어가는 전주 시민들의 가치와 품격을 한층 높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시·군 연계 관광 상품 추가 출시

군산·임실·부안 참여 추가 여행상품 구성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도내 시·군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추가 출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출시한 '2022 mymy travel' 여행상품의 후속으로 추가 참여를 원하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군산시·임실군·부안군이 참여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여행상품은 단체 여행으로만 구성됐으며 △옥정호 물안개길 트레킹과 치즈테마파크 투어(임실) △내소사 트레킹과 곰소항 열전투어(부안) △시간여행 마을 해설사 투어(군산) 등 가을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및 힐링 여행으로 기획됐다.

또한 전 지역 공통으로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맛집과 카페까지

코스에 포함돼 있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출시하는 단체 여행상품 또한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인증받은 전문한옥에 머물며 전주만의 멋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시에 관광객이 전주 여행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군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추가된 여행상품을 포함한 모든 '2022 mymy travel' 여행상품은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인 티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시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나선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5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전주시청소년안정망 중점사업 결과 보고와 올해 1차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대상자 지원금 인상 의결에 대한 결과 보고에 이어 2차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청소년안정망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시는 하반기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통해 적합 대상자 10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정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필수연계기관(고용센터, 교육



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시설,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업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예비 등 심비 지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민·관 협력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구현

전주시-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지역 30개 클럽, 결연봉사 협약식 가져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총재 국승일)가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에 힘쓰기로 했다.

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는 25일 전

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승일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송성순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전주지역 30개 로타리클럽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2023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공동 봉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26일 체결한 협약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간 협약과 더불어 전주지역 30개 로타리클럽과 전주시 35개 동간 결연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 자리에서 국승일 총재는 전주지역 30개 클럽과 전주시간 결연사업은 클럽·동간 결연을 통해 연 1회 이상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봉사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클럽·동간 결연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 이후 매년 2억 원 상당의 기부가 이뤄져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꾸준한 협약을 체결해 민간영역의 봉사활동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건넨 국제로타리 3670지구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민간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는 2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승일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송성순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전주지역 30개 로타리클럽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2023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 이후 떠오른 시골생활 트렌드'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전주시는 2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분석센터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제209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 강사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열린시민강좌에서 '일상마저 버거운 도시인들, 삶에 소박한 '촌'스러움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특히 이 강사는 1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2일은 시골에서 지내는 라이프 스타일인 '오도이촌(五都二村)' 등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시골생활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높이고

농협은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농촌도 국민의 삶도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농협이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순창농업협동조합
동계농업협동조합
구림농업협동조합
서순창농업협동조합

청년 일자리 살리고
청년 농업인 창업 컨설팅 / 교육, 자립 및 훈련지원

금융생활 살리고
편안·도달·미래의 농민들 /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살리고
전국 2,200여 개 읍·면·리 단방 운영 / 4대농 운영

농가소득 높이고
영농지원기대사업 / 영농기술훈수 및 수확지원

먹는 즐거움 높이고
유기농산물 생산·유통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농업가치 높이고
농업관광사업 / 농민소득 증대 /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